

광주 출신 김효진양 미스춘향 眞



제85회 춘향제 사전행사로 열린 춘향선발대회에서 김효진(21·서울 건국대)양이 최양미(21·서울 건국대)양이, 정예는 고소영(18·경기 고양 저동고)양이, 숙예는 최선정(23)양이, 현예는 배지원(23·경기 수원·한양대)양이, 우정상에는 최명지(인천대)양이, 해외동포상에는 조이정(미국 뉴욕주립대 올버니)양이 각각 뽑혔다.

김양은 최근 남원 광한루원 특설무대에서 열린 춘향선발대회에서 "이몽룡이 10년째 과거에 낙방했다면 어떤 말로 위로 하겠나"는 질문에 "몽룡씨 이제 우리 기술을 배워봅시다"라는 재치있는 대답으로 박수갈채를 받았다.

올 춘향선발대회는 전국 각지와 중국, 미국, 캐나다에서 292명이 참가해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해 32명이 본선에 올라 경합을 벌였다.

예선을 통과한 32명은 지난 11일부터 10박11일 동안 KBS남원방송국에서 합숙을 하며 춘향선발대회를 준비했다. 또 춘향의 고장 남원의 문화유산 견학하고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도 펼쳤다.

/남원=정규섭기자 jgs@kwangju.co.kr

양은주씨 춘향국악대전 대통령상



제42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대회에서 전북 남원 출신 양은주(여·41)씨가 우승을 차지해 대통령상을 받았다.

지난 25일 광한루원 특설무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양씨는 심평가 중 '심봉사 눈뜨는 대목'을 청아하고 구슬픈 목소리로 완벽하게 소화해 평균 99점을 얻었다. 그녀는 심사위원 7명 전원에게 99점을 받을 정도로 안정적인 공연을 선보였다.

그녀는 "춘향국악대전이 고향 남원에서 열려 긴장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준비할 수 있었는데, 그 덕분에 우승과 명창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더 노력해서 명창이라는 이름을 더욱 빛낼 것"이라고 말했다.

양씨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소리에 입문해 강도근 명창, 전이삼 명창, 이일주 명창, 김순영 명창으로부터 각각 소리를 사사했다. 양씨는 현재 국립민속국악원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4명의 예비 명창이 기량을 겨룬 이날 본선대회에서 최우수상에는 이연정씨(심평가 중 '심정이 물에 빠지는 대목', 평균 97.8점), 우수상에는 김지숙씨(춘향가 중 '심장가')가 각각 받았다.

/남원=정규섭기자 jgs@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3기 원우회 해외연수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3기 원우회(회장 이학재)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태국 방콕 파타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해외연수에 참여한 원우 38명은 현지 관광과 문화체험을 함께하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학재 회장은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원우들이 활력을 재충전할 수 있었다"며 "제3기 원우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올려 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

“아픈 아내와 했던 10년 전 약속 지켰어요”

정이완 평가사 1억 기부
아녀소사이어티 가입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비를 겪었던 아내가 건강해지면 좋은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게 돼서 기쁩니다. 저도 사람인지만, 좋은 차를 살까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아내가 건강을 회복했고, 10년 전부터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랑의 열매를 찾았습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삼열)는 ㈜삼정감정평가법인 정이완(75) 감정평가사가 아녀소사이어티 회원으로 탄생했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28년째(전국 824호) 아녀소사이어티 회원이 된 그는 지난 28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실에서 소감을 전하며 밝은 표정으로 웃었다.

지난 11일 1억 짜리 수표를 들고 모금

회 사무실을 찾은 그는 “10년 전에 한 약속을 지키러 왔다”며 기부하게 된 계기를 말했다.

“1992년부터 아내가 많이 아팠습니다. 코에서 시작된 종양이 뇌로 전이돼 22시간에 걸쳐 뇌수술을 받은 후 오랫동안 심한 고통을 시달렸습니다. 다행히 2000년도에 완쾌가 되어, 10년 후에도 우리가 건강하면 반드시 좋은 일

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10년 만기 연금이 가입됐고, 오늘 드디어 그 약속을 지키게 됐습니다.”

이날 진행된 아녀소사이어티 가입식에서는 아녀 인증패 전달, 아녀 동판 핸드프린팅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광주 아녀소사이어티는 올해 미쓰에이 배수지 등 6명의 신규 회원이 탄생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농협구례교육원, 밑반찬 나누기 행사



농협구례교육원(원장 최익주) 임·직원들은 최근 구례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찾아 밑반찬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농협구례교육원 제공>

최복규 재광해남군향우회장 취임

제 32대 재광해남군향우회장에서 최복규(59·한페이지스 상임감사) 씨가 취임했다.

재광해남군향우회는 지난 27일 광주상록회관에서 70여 명의 향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36차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 회장에 최 부회장을, 감사에 백도선(북광주실험 이사장)·이윤재(우리은행 부장) 씨를 각각 선출했다. 최 회장은 황산면 출신으로 광주은행 영업본부장을 역임한 금융통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수원(현산면) 광주지방공세정장과 용영준(송지면) 한국공기기술원 총괄본부장이 '자랑스런 향우상'을 받았다. 또 이양배·오순철·이재남·박홍수·박병관·오동오·한성규·유우익·김현준씨가 공로패를, 하상근(해남부티피코)과 원정(전연수(원광전력 대표이사)·이향수(회계사) 씨가 각각 감사패를 받았다.

/양세열기자 hot@

전남대 이윤성·야수유키 교수 '융복합학술상'

전남대학교는 지난 27일 공과대학 응용화학공학부 이윤성(43·왼쪽)교수와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명공학부 야수유키(48) 교수를 제19회 융복합학술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윤성 교수는 최근 1년간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JCR 상위 10% 논문이 총 4편에 달했으며, 특히 대표논문은 JCR 상위 1%에 등재된 탁월한 연구실적을 보였다.

외국인으로는 처음 융복합학술상을 받게

된 야수유키 아라카네 교수 역시 최근 1년간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JCR 상위 10% 논문실적이 4편에 달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일본 아마구치 대학을 졸업하고 돗토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야수유키 아라카네 교수는 2010년부터 전남대학교 식물생명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융복합학술상은 전남대학교가 교수들의 연구 의욕 고취를 위해 제정한 상으로 매



년 연구실적, 논문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교외 연구비 수주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이들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6월8일 개교 63주년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기재우·엄혜영씨 장남 형규군 이권철(전남발전연구원장)·김명숙(진도 석교초 교장)씨 장녀 지성양=광주피로연-30일(토) 오후 6시 올리데이인 광주호텔 2층 아젤리아홀. 결혼식-6월 6일(토) 낮 12시 서울 KW컨벤션센터 02-598-3000.

▲이경섭(목사)·김희녀씨 장남 인석(전남대 치과병원 전공의)군 이진서(전 신용보증기금 전남본부장·(주)구산건설 대표)·황선희씨 장녀 은민양=30일(토) 낮 12시 50분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 4층 그랜드볼룸.

▲전병호(남도일보 부회장)·김금례씨 장남 정인(MBN 사회부 보조팀 기자)군 이길영·김옥자씨 장녀 주연(KG이니시스 회계팀 대리)양=광주피로연-29일(금) 오후 6시 30분 아름다운 컨벤션 웨딩홀 결혼식-6월 13일(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프라자 1층 그랜드볼룸.

▲김형준(광주U대회 총무부장)·손용금씨 차남 정관(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군 이계평(주)신우 ENG대표)·황현숙씨 장녀 주영(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양=30일(토) 오전 11시 50분 광주 라페스타 4층 디아랑홀.

▲조성광(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주희숙씨 장녀 아라(안양양지초등학교)양 최희영(현대로템 미안마 주재대표)·남가연씨 차남 환우(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군=6월 6일(토) 오후 1시 안양 웨딩노블레스 031-381-0100.

동창회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조보규)월례회=6월 5일(금) 오후 6시 30분 금강산식당 062-224-0808.

알림

▲가시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환 채무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광주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365일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인양 가정="인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인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모집

▲함께 안아주세요! 함께 키워주세요! 가정위탁! 위탁부모=부모의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

는 아이들을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는 위탁부모를 모집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 062-351-1206.

▲맘보퓨어터 살사동호회원=라틴댄스·살사·차차 등. 010-5136-0028.

▲원불교 문화센터 회원=서예, 요가, 다도, 노래교실, 생활영어, 규방공예 등,

쌍촌동 원음방송국 062-232-7223~4.

▲광주여성하모닉스합창단(지휘 이준) 회원=클래식음악을 좋아하는 광주지역 거주 여성, 매주 월·목요일 오후 2~4시 광주문화예술회관내 시립소년소녀합창단실 016-604-1918(회장), 010-4416-9883(총무).

▲농성문화의 집 오전요가 수강생=균형있는 몸매와 정신을 맑게 깨우는 요가 관심있는 분이시면 누구나 환영(매주 화·금, 오전 9시 30분~10시30분) 062-362-2072.

부음

▲정대규(전 광주일보 제판부장)씨 별세 속현(전 우리은행 지점장)·속호·속진(광주일보 부장)씨 부친상 진정례(교보생명 여주지점장)씨 병부상=발인 29일(금) 금호장례식장 3층 특실 062-227-4382.

▲황승현씨 별세 권수·권희·선미씨 부친상=발인 29일(금) 금호장례식장 402호 062-227-4314.

▲윤순자씨 별세 박현철·현수·순희·순자씨 모친상=발인 29일(금) 금호장례식장 102호 062-227-4386.

▲최광배씨 별세 철호·수경씨 부친상=발인 29일(금)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안옥현씨 별세 재오·명환·숙희·선미씨 부친상=발인 30일(토)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3분향소 062-231-8903.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재계감삼 님 (남/79세) 子/子婦: 재종식, 재종호/윤남식 女/婿: 재진실, 이만수, 재진심/정오국, 재미심/육정운 未成人: 이영자 ●발 인: 5월 30일 ●장 지: 보성 배내 성령 ●연락처: 227-4381	301호 故정대규 님 (남/81세) 子/子婦: 정수원/조정희, 정숙호/봉영진, 정숙진/임은희 女/婿: 정진실, 이만수, 재진심/정오국, 재미심/육정운 未成人: 정진순 ●발 인: 5월 29일 ●장 지: 함평 월아 성령 ●연락처: 227-4382
401호 故재계규두 님 (남/89세) 子/子婦: 재석범/김유정, 재석원/양은희 女/婿: 재옥실, 재일실/김영술, 재순영/김홍식, 재현옥/임대중 未成人: 임백예 ●발 인: 5월 29일 ●장 지: 경천 윤천 성령 ●연락처: 227-4383	402호 故황승현 님 (남/76세) 子/子婦: 황관수/이미자, 황권희/양선자 女/婿: 황선미/김현중 ●발 인: 5월 29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14

102호 故윤순자 님 (여/80세)
 子/子婦: 박현철/고영숙, 박순수/최미라
 女/婿: 박순희/김수민, 박순자/최경민
 ●발 인: 5월 29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6

마 음 까 지 편 안 한
孝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